



[낙농생산] 산불 연기, 젖소 원유생산량 감소 영향

- 대기 오염과 고온 스트레스로 일평균 원유생산량 약 1.3리터 줄어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젖소의 원유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질병 발생 및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직까지 산불 연기가 가축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미국 아이다호 대학 연구진이 이에 대한 규명을 위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과 고온 스트레스로 일평균 원유생산량이 약 1.3리터 줄어들었으며, 공기 질이 개선된 지 2주 후에도 젖소의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산불 발생시 미세 연기 입자가 폐 깊숙이 침투해 만성심장질환 및 폐 질환을 악화시키고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만큼 열과 연기의 명확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 출처 : wionews.com, 9월 22일 >

[마케팅] 아일랜드, 올림픽 선수와 함께 학교우유 소비 확대 나서

- 교내외 학생들의 우유 소비 확대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 독려



아일랜드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함께 학교우유 소비 확대에 나섰다.

최근 농식품해양부는 본격적인 전면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도교 올림픽 복싱 금메달리스트를 학교우유 및 건강한 먹거리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백투스쿨(Back-to-School)’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충분한 양의 우유와 건강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기르는데 긍정적인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해당 메달리스트는 최근 공개된 교육용 동영상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우유, 과일 및 채소 섭취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현재 아일랜드는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우유는 물론 ‘푸드 듀디스(Food Dudes)’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1/22학년도에는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2주간 무상으로 우유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 출처 : agriland.ie, 9월 22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